

데스크 시국



임동욱  
선임기자·서울취재본부장

바이하로 대선의 계절이 다가왔다. 불과 한 달 후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 등록(6월 21일~22일)이 이뤄진다. 이른바 여당의 잠룡들은 대선 티켓의 행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최근 광주·전남을 왔다투어 찾고 있다. 송영길 대표 체제로 새로이 지도부를 구성한 민주당도 소모적 개혁 논란보다는 민생에 방점을 둔 쇄신론을 토대로 정권 재창출을 꾀하고 있다.

제1야당이 국민의힘 역시 호남을 끌어안는 '서진(西進)정책'을 지렛대 삼아 혁신 보수로의 변화를 꾀하며 정권 탈환을 노린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근래 광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잇따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당권 경쟁에서 70년대생 젊은 주자들이 파란을 일으키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 앞두고 지리멸렬 양상

이처럼 여야 정치권은 변화와 쇄신을 토대로 치열하게 내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어정쩡한 모습이다. 4·7 재보선 참패로 정권 재창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호남 정치권에서는 그 어떤 절박함도 보이지 않는 듯하

은편칼럼



강대석  
시인

어느덧 사십 년이 흘렀다. 1980년에 나는 여수시청 사회과 복지계에서 말단 공무원으로 이웃돕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5월 18일 '광주 소요 사태'(당시 신군부의 용어)를 맞았다. 여수에서는 풍문만 무성할 뿐 광주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 답답했다. 나흘 뒤인 22일 오후 대학생 두 명이 사회과를 찾아왔다. 옷과 신발은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얼굴과 손은 가시에 긁힌 듯 상처투성이였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광주에서 무장군인들을 피해 산길을 타고 밤낮을 걸어 왔다고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들로부터 광주의 상황을 대충 들을 수 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당시 사회과에는 사정이 긴박한 사람(부랑인 등)들을 위해 귀가 교통비와 하루 식대 정도를 지원해 주는 긴급 구호 예산이 있어 3만 원을 지급했다. 다음날 또 대학생 한 명이 찾아왔다. 그에게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많은 시민이 군인들의 총칼에 쓰러져 죽고 시내가 아비규환의 현장을 말해 주었다.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문득 광주시민돕기 운동을 전

기고



김병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전남의 문화·관광자원을 실감 콘텐츠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작년부터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실감 콘텐츠 구축' 사업장을 둘러본 적이 있다. 그때 강진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에서 보았던 어느 가족의 행복한 나들이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한다. 몰입형 실감 콘텐츠가 구축된 공간에서 고려청자의 탄생 과정을 몰아쳐라 고 바라보는 아이와 그 옆에 서서 미동도 않고 몰입하고 있는 아빠 엄마를 보니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오감 인식을 통해 전달되는 실감 콘텐츠의 위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앞으로 실감 미디어 콘텐츠로 구축된 공간은 우리 지역에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고, 관람 만족도를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정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전시 자원을 실감 미디어 체험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것은 기존의 일방적인 전시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을 통해 쌍방향으로 전환하고, 체험자의 몰입감을 증대시키기에 그 필요성이 크다.

호남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다. 민주·진보 진영의 심장인 호남 민심을 토대로 적극적인 도전과 결집에 나서기보다 스스로 비주류의 한계에 빠져 사분오열하는 모습이다. 역대 진보 정권 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호남 정치의 맥이 제대로 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민주당 내부의 '쇄신 대 개혁' 노선 논란과 장관 후보자 낙마를 둘러싼 당·정 간의 미묘한 힘겨루기 국면에서도 호남 정치권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속 시원하게 호남 민심을 대변하면서 정치적 미래를 개척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침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쇄신론을 내건 송영길 대표는 호남에서 기대만큼의 높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 호남 단일 최고위원 후보였던 서삼석 의원의 낙선은 각자도생에 나선 호남 정치권의 남루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당내 대선 후보 지지를 놓고도 지역 정치권에선 갈지자(갈之字) 행보가 속출하고 있다. 당초 이낙연 전 대표 지지를 표명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로 슬며시 선회하는가 하면, 정세균 전 총리 지지를 밝힌 모 국회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해명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후분이다. 또 상당수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미래 비전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대선 후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대세를 엿혀갈려는 모습이어서 호남 정치 특유의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전면적인 세력 교체가 이뤄진 호남 정치권에 기대만큼의 새로운 바람은 일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무려 14명이 초선이다. 정치적 역량 측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초선 특유

의 치열한 문제의식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초선 가운데 60대가 6명(이병훈·이형석·민형배·윤재갑·주철현·소병철)이나 된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과거에 기반한 '꼰대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적 구심점이 없고 운동권과 관료 출신 사이의 화학적 결합도 약하다. 군 공항 이전이나 구간 경계 조정 등 각종 지역 현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도 지역 정치권의 정치적 부재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정치인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 내일이 예견된다는 점에서 호남 정치의 위기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열 재정비 주류로 거듭나야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흔히 '냄비속 개구리'에 비유하곤 한다. 개구리는 끓는 물에서는 곧바로 뛰어나오지만 서서히 가열되는 미지근한 물에서는 온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뛰어나올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결국 죽음에 이른다. 여당의 달콤함과 안락함에 취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뜨끔한 비유일 터이다.

정치는 민심을 토대로 미래를 선점해 가는 투쟁이며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호남 정치권은 이제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호남의 현실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미래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의 계절을 맞아 호남 정치권은 소통과 결집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키우면서 정권 재창출을 주도함으로써 당내 비주류를 넘어 시대의 주류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5·18과 여수의 광주시민 돕기 운동

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웃돕기 업무 담당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기안을 했다. 제목은 '광주시민돕기 운동 전개'였고 본문은 "지난 5월 18일부터 일어난 불의의 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시민을 돕기 위해 긴급 광주시민돕기 운동을 전개하오니 많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먼저 복지계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복지계장은 한참을 보더니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사인을 해 주었다. 사회과장은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는 게 좋겠다며 사인을 했다. 그리고 부시장을 거쳐 시장실로 갔다. 당시 시장은 한병을 써왔다. 나는 광주의 사정을 대학생들에게 들은 대로 이야기하고 광주시민돕기 운동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장님은 대뜸 "자네 학교는 어디 나왔는가? 이름이 뭐지?" 하며 나의 신상을 물어본 뒤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와 함께 결재를 해 주셨다. 그러면서 사태가 끝나고 행정이 정상화되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역시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5월 27일 사태가 끝나고 행정이 정상화되자 5월 말 공문을 시행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여기저기서 문의 전화가 오고 성금이 답지했다. 불과 20여 일 만에 580여 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나는 성금을 여수 MBC에 전달했다. 민영방송인 MBC가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서였다.

7월 초였다. 아침에 출근하니 청내가 뒤숭숭했다. 시장 이하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밤중에 군 보안대로 잡혀갔다는 것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시장은 광주 상무대로 이송되고 부시장이

하 간부 공무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전신에 피멍이 들도록 고문을 당한 뒤 풀려났다. 당시 얘기로 전남 27개 시군 중에서 유독 여수시만 그런 날벼락을 맞았다고 했다. 간부 공무원들은 왜 여수시가 군부의 비위를 거슬러 그런 곤욕을 당했는지 실과별로 잘못된 업무가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말도 했다.

나는 뜨끔했다. 혹시 내가 기안한 광주시민돕기 운동이 빌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여수시에서 시작된 광주시민돕기 운동은 뜨거운 호응을 얻어 시군으로 전파되고 결국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되었기에 군부의 입장에서 처음 불을 지핀 여수시가 기본 나쁜 대상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스스로 부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내내 짐이 되었다. 그 뒤 전남도청으로 전임한 나는 그때 모금된 성금이 당시 전남도 차원(광주시는 보통시였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어린이대공원을 조성하는 데 쓰였다는 것을 알았다. 일견 뽕뽕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스스로 억누르고 살아왔지만 해마다 5·18이 되면 그때 생각이 되살아나 이제야 목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그것은 80년 당시 여수시청을 짓밟은 군부의 가혹한 폭력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으며 만약 다른 이유가 아닌 광주 시민돕기 운동이 원인이었다면, 이로 인해 해직까지 당한 시장과 며칠씩 고문을 당한 간부 공직자들에 대하여 이제라도 적절한 신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내일이 있는 문화·관광 '실감 콘텐츠'

작년에 도내에 구축된 실감 미디어 콘텐츠는 두 곳이다. 하나는 강진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으로 몰입형 3면 영상을 활용한 '시각화 공간'(Visualization Zone), 16개의 디지털 액자로 구성된 '정보공간'(Infomation Zone), 청자의 제작 과정을 확장 현실(XR) 게임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Experience Zone) 등으로 구성되어 고려청자 탄생 과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신안 조화롭 미술관으로 조화롭 화백의 아름다운 그림을 미디어아트로 재구현하고 체험 요소를 덧입힘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작품의 심미감과 몰입도를 배가시켰다. 3면으로 확장된 프로젝션 매핑 공간과 관람객의 행동에 반응하는 네 개의 인터랙션은 조화백의 작품 속에, 그리고 작품의 배경인 입자도에 실제로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전남도는 이러한 실감 미디어 콘텐츠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군을 대상으로 가상현실(AR), 증강현실(VR), 대화형 매체(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험 공간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관련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감 미디어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센터에서는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맞춤형 인재 양성, 콘텐츠 실증 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지역 대학인 동신대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실감 미디어 관련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어느덧 우리 사회는 지식 전달에서 경험 중심의 사회로 진입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변화와 다양한 경험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소규모 가족 여행이 늘고 있으며, 앞서 보았던 가족처럼 이제 는 아이와 어른이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지식 전달만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갈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새롭고, 더 체험 지향적인 콘텐츠가 지역 문화·관광자원에 융합되어야 한다.

그러라고 옛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전통문화 자원에 스토리를 입히고,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면 새로운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인도의 위대한 시인 타고르스는 말했다. "오래된 씨는 생명의 싹을 내부에 갖고 있다. 그것은 다만 새 시대의 토양(土壤)에 뿌려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 남도의 전통문화 자원이라는 풍부한 씨앗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첨단기술이라는 토양에 그 씨앗을 과감하게 뿌려야 할 때다.

그 씨앗이 싹터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이를 맛보기 위해 전국에서, 나아가 전 세계에서 남도를 찾을 것이다. 우리 지역의 엄청난 자연·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우리만 누릴 것인가, 아니면 전세계인과 함께 누릴 것인가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

社說

여야 정치권 '5월 광주의 다짐' 꼭 지켜야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일을 맞아 이번 주, 광주에서는 추모 열기만큼이나 여야 정치권의 각축이 뜨거웠다.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권 주자들과 당 지도부는 물론 초선 의원들까지 앞다투어 광주를 찾아 민심 잡기 경쟁을 펼친 것이다.

특히 어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5·18 유공자 및 유족 등 99명이 참석했으며 여야 지도부도 함께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원 제한으로 여권 대권 주자들은 기념식 참석 대신 개별적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제부터 이틀간 호남을 찾아 '대세론 굳히기'를 외쳤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광주에 머무르며 '광주 구상'을 제안하는 등 지역 표심을 다졌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1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 조직 다지기에 나섰다.

국회의원 의원들과 야권 잠룡들도 적극적인 호남 구애 활동을 펼쳤다. 그제 열린 추모제에는 5·18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탠 국회의원 정운찬·성일종 의원이 보수 정당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5월유족회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에 "5·18정신을 국민 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도 옛그제 5·18묘지를 참배하고 5·18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여야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심장부이자 역대 대선 판도를 좌우해 온 호남의 지지세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의 5월 광주 집결이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에 그치지거나 5월 정신 계승 약속이 구두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여야는 5·18 진상 규명과 왜곡 근절에 적극 나서으로써 진정한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18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실이다"

옛그제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한 대학교의 학생들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이들의 참배가 눈길을 끈 것은 이 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수의 발언을 대신 사과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훈택 교수는 '사회적 인권과 이슈'를 주제로 한 비대면 강의 도중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학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오월 영령 앞에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신 사과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

학생들은 화순 주남마을 학살 사건 희생자 박현숙 양,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어린이 희생자 전재수 군의 묘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또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고

(故) 문재학 군의 어머니 김길자(81) 씨로부터 5·18 당시 현장의 참혹함을 전해 듣기도 했다. 문 군은 당시 학생(광주상고 1학년)으로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까지 저항하다 숨졌다.

위덕대 학생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영남 지역에 5·18을 널리 알리고 미안한 사배에 대한 지지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학 총학생회장 이다영(24) 양은 "영남 지역에 있다 보니 5·18을 한국사 시험의 일부뿐이나 역사적 사건으로 밖에 느낄 수 없었지만 이번 참배를 통해 역사가 아닌 현실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렇다. 5·18은 역사의 유물이 아니다. 아직도 '북한군 개입설' 등으로 5·18을 편향하려는 세력이 있지만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이제 주목점으로 하나가 됐던 대동세상의 꿈을 기억하고 나눔과 배려의 5·18정신을 전 세계와 공유해야 할 때이다.

無等鼓

BBC는 1927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국영방송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국이다. 다큐멘터리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독보적인 콘텐츠를 자랑한다.

요즘 산업계에서도 BBC가 화두다. 여기에서의 BBC는 방송이 아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산업의 삼두마차라고 하는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반도체(Chip)를 일컫는 말이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BBC 산업이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시작된 미-중 경제 패권 전쟁이 바이든 시대에 들어

을 종식시킬 열쇠다. 미래 모빌리티 기반인 배터리와 IT의 핵심 소자인 반도체는 공급 조절로 상대국의 첨단산업을 무력화할 수 있다. 최근 시스템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서 그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다행히 한국은 BBC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바이오는 생산량으로 볼 때 미국에 이어 2위이고, 전자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중국에 이어 2위다.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 1위이고,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서도 대만에 이어 2위다.

BBC 산업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격화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BBC에 회도류를 더한 4대 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꼽고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정도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BBC 산업은 공급난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응 방안을 찾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진입 장벽이 높아 공급이 제한적인 데 반해 일자리, 국민 건강,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기반산업이라 '안보 무기'로 활용될 수도 있다. 백신은 코로나19 팬데믹

문제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코로나 백신과 반도체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방미단에는 삼성·SK·LG 등 BBC를 이끄는 그룹 총수들이 동행한다. 한국 측은 BBC 기업들의 경쟁력을 안보 자릿대로 삼아 백신동맹과 북·미 협상 재개 등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쟁력이 외교 무대에서 무기가 되는 세상이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